



2023년 2월 2일 목요일

600,000,000,000 원의 증발

안녕하세요,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의 유선규 상무입니다.

그동안 보도자료,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종종 글로도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먼저, KT&G 를 글로벌 회사로 만들기 위해, 여러 주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1월 26일 “인베스터 데이”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고, 저희에게도 말씀해주시곤 하는데요. 저희도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이번에 좀 더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정기 실적보고도 아니고, 특별 편성해서 발표한 “인베스터 데이” 후에 주가가 폭락했다는 점은, 정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2일 주가는 인베스터 데이 전보다 시총 6,300 억원이 증발했습니다.

회사가 “인베스터 데이”라 부른 세션 한시간 내내, 정작 현재 주가가 15년전과 같다는 점, 이를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3.9조 (2021년 매출의 무려 75%입니다)를 한번에 발표 하면서, 이미 다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6조가 넘는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이를 썩혀 두는 것은 저희 동영상 (https://youtu.be/361x_q9iUBE?t=582) 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건, 주주환원이건 “정당한 이유, 탄탄한 계획”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조는 왜 필요한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주주에게 주느니 차라리 쓰고 말지”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100% 지분을 들고 있는 주주였다면, 회사가 정말 이런 식으로 주주를 취급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문의해 주시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미 지난 1월 19일에 1%이상의 지분으로 여덟 가지 안건에 대해 법상 요건을 갖추어 정식 주주제안을 접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오는 3월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의결권 위임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이후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답하고 실망스러울 수록,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옳은 길로 정진하려고 합니다. “주주가 주인”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증명되도록, 주총에서 주주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상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마음을 잊지 않고 전력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contact@flashlightcap.com 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착하게,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KEEP CALM, GO HIGH”

감사합니다.

유선규 드림

